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1월 소비자 물가 연율 6.4% ↑, 여전히 높아 연준에 압박
- WSJ: 연준 이사 Bowman, “미 금리 더 올려야 한다”
- Bloomberg: 골드만삭스 CEO, “기업 지도자들, 연착륙 기대감 커져”
- WSJ: 연준 부의장 Brainard, 백악관 NEC 책임자 된다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미 주식 오늘 내림세...1월 CPI로 금리 더 상승 우려 탓

[뉴욕시]

- NYT: 뉴욕시 전철 승객 수 회복하지만 여성 여전히 기피

[뉴저지]

- CNN Business: 대규모 NJ 트랜짓, 노사 임금 분쟁 점차 커져

[에너지 정책]

- WSJ: 연방 재무부, 기업 대상 1백억불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곧 시행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월마트, ‘기술허브’ 3곳 문닫고 직원 재배치한다
- WSJ: 빅테크 칼바람에 직원들 퇴직 협상 중
- WSJ: 포드, 미시간 배터리 공장에 35억 불 투자... 업체 CATL과 합작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Inflation Stays Elevated, Adding Pressure for More Fed Hikes

1월 소비자 물가 연율 6.4% ↑, 여전히 높아 연준에 압박

- 1월 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율로 6.4%, 그리고 전년 대비 0.5% 상승했다. 하락세가 주춤해진 셈이다.
- 이는 인플레이 압력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줄 만큼인 것.
- 연방 노동부의 오늘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12월보다 0.5% 상승했고, 지난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특히 에너지와 주거 비용이 상승세를 키웠다.

Bloomberg 기사

WSJ: Fed's Michelle Bowman Stresses Need for More Rate Increases 연준 이사 Bowman, “미 금리 더 올려야 한다”

- 오늘 화요일 CPI 발표 전에 연준 이사인 Michelle Bowman은 1)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가 있으며 2) 인플레 통제 때까지 더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- 그는 올랜도에서 열린 American Bankers Association에서 “물가 안정을 이루려면 아직 멀었고, 인플레 통제를 위한 보다 긴축적인 금융정책을 펼쳐야 경제 활동에서 성장이 누그러지고, 노동시장 여건도 둔화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그는 덧붙이기를, 물론 공급 사이드 요인의 회복 탓에 인플레 일부 상황이 둔화하긴 하지만, 고용주들이 타이트한 노동시장에서 인력 유지를 위해 임금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.

WSJ 기사

Bloomberg: Goldman's CEO Says Business Leaders Are More Optimistic on Economy 골드만삭스 CEO, “기업 지도자들, 연착륙 기대감 커져”

- 골드만삭스의 CEO인 David Solomon은 “업계 CEO 사이에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. 지난 6개월부터 9개월 이전보다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”고 말했다.
- Bank of America의 CEO인 Brian Moynihan도 “미 인플레와 다른 경제적 역풍에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강한 입장이다. 소비 성장이 줄긴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차용 능력이 있다”고 말했다.
- 한편 David Solomon은 지난달에 인력 6.5%인 3천2백명을 해고했는데, 올해에도 고용은 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. 비용 절감이 우선 순위라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WSJ: Lael Brainard Set to Lead White House National Economic Council 연준 부의장 Brainard, 백악관 NEC 책임자 된다

- 연준 부의장인 Lael Brainard가 국가경제위원회(National Economic Council) 책임자인 Brian Deese가 2월에 그만두면서 후임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을 밝혔다.
- 이 자리는 1) 대통령에 대해 정책과 인사 결정을 자문하고 2) 행정부 부처 간의 정책 결정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는다.

- 미국이 현재 고물가, 고금리, 경기 침체의 어려운 역풍을 겪는 상황에서 그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된다. 그는 금리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보다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.

WSJ 기사

[미국 금융]**Bloomberg: US Stocks Drop on Higher-Than-Expected CPI Print: Markets Wrap****미 주식 오늘 내림세...1월 CPI로 금리 더 상승 우려 탓**

- 1월 CPI 데이터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자 S&P500 지수는 0.53% 떨어졌고, 2년물 국채 수익률은 4.6%로 꺾였었다. 이번 CPI 수치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 열어두기 때문이다.
- 스와프 계약을 보면 투자자들은 3월과 5월에 각각 0.25%의 금리가 인상되고 6월에도 같은 비율로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셈이다. 연준의 금리를 전체적으로 5%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.

Bloomberg 기사

[뉴욕시]**NYT: As Subway Ridership Rebounds, Some Women Are Reluctant to Return****뉴욕시 전철 승객 수 회복하지만 일부 여성 여전히 기피**

- 뉴욕시 지하철에서의 범죄와 괴롭힘에 경계를 높이던 많은 여성들은 팬데믹 기간동안 다른 이용 방법 등 차선책을 택하는데 익숙해졌다.
-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(MTA)는 이를 전철 탑승객 수 회복세가 쳐지는 이유로 꼽았다. 운영 수익의 거의 40%가 승객 요금에서 나왔었는데 오늘날 그 수가 감소하고 원격근무 까지 겹쳐 점유율은 23%로 떨어졌다.
- 특히 여성 승객의 복귀는 남성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당국에 중요한 사안이다.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가사 업무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오히려 집을 더 자주 비워야 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었다.
- 전 뉴욕시 지하철 책임자였던 Andy Byford는 "시와 주 관계자들이 안전 문제로 지하철 이용을 기피한 여성 승객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"고 말했다.

NYT 기사

[뉴저지]

CNN Business: Labor showdown looming at NJ Transit, one of nation's largest commuter railroads

대규모 NJ 트랜짓, 노사 임금 분쟁 점차 커져

- 미국에서 거의 가장 큰 통근버스 서비스인 뉴저지 트랜짓이 지난해 거의 운행이 중단할 위기에 처했던 화물기차 노조 분쟁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.
- 이 열차 노선은 팬데믹 전 주중에 실어 나른 승객은 무려 24만명.
- 노조는 “만약 뉴저지 트랜짓 엔지니어링의임금이 18%~23%로 인상되지 않으면 관련 노조 5백명을 다른 열차 노선으로 뺏길 수 있어 해당 인력 축소와 열차 운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

CNN Business 기사

[에너지 정책]

WSJ: New \$10 Billion Program for Energy Subsidies Set for Rollout by Treasury Department

연방 재무부, 기업 대상 1백억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곧 시행

- 이는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하고, 저소득층 지역에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에 새로운 세금 감면에 주는 프로그램이다.
-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인플레이 감축법으로 알려진 ‘기후, 보건 및 세법’에서 작년에 만들어졌다.
- 회사들이 이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연방 재무부는 어떻게 세금 감면이 시행되는지 구체적인 시행령을 준비해 왔다.
- 재무부는 연방정부가 오는 5월 31일부터 30% 투자 세금 공제인 첨단 에너지 프로그램의 첫 40억달러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.
- 구체적으로는 연료 전지 구성요소 제조, 기존 시설에 탄소 포집 장비를 추가, 또는 중요한 광물 처리가 포함된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Walmart to Close Three Tech Hubs, Tells Tech Staff to Return to Offices

월마트, ‘기술허브’ 3곳 문닫고 직원 재배치한다

- 대형유통업체 월마트는 오스틴, 오레곤 포틀랜드, 캘리포니아 Carlsbad에 있는 사무실을 폐쇄한다. 수백 명의 기술직원들에게도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전해야 된다고 전했다.

- 회사는 위 3개 지역의 직원들이 캘리포니아주 San Bruno, 아칸소주 Bentonville에 있는 본사 또는 주요 사무실로 이주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이러한 결정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선 것과 같은 이유라고 외신은 분석했다. 동시에 재택근무를 줄이고 출근을 늘리고 있는데, 새 사무실로 옮긴 월마트 직원들은 적어도 주2일을 출근해야 한다.
- 게임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, 월트디즈니, 그리고 금융 대기업들도 주 3~4일을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.

WSJ 기사

WSJ: Laid-Off Tech Workers Seek Leverage on the Way Out 빅테크 칼바람에 직원들 퇴직 협상 중

- 메타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만 명 규모의 감원을 발표한 가운데 직원들은 변호사까지 고용하면서 퇴직에 더 많은 보수 또는 의료혜택의 연장을 협상하려는 추세다.
- 컨설팅 업체 대표 Brian Liou는 “그들이 타이트한 노동시장에 있어 더 현명해지고 있으며 회사가 감원하는 것은 재정난을 겪는 것이 아닌 팬데믹 기간 때 과도하게 고용한 초과 인원을 줄이려는 게 더 큰 이유로 보고 있다”고 전했다.
- 또한 회사들은 직원이 링크드인이나 트위터로 그들의 해고 상황, 처우의 불만을 공개하여 브랜드에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을 더 경계하고 있다.
- 과거 기술직 인사팀을 담당했던 Jenny Dearborn는 “회사가 투명한 퇴직 정책을 공개하고 이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”고 덧붙이며 “지속적으로 적용되던 전략과 다를 때 차별이 발생하기 쉽다”고 강조했다.

WSJ 기사

WSJ: Ford Invests \$3.5 Billion in Michigan Battery Plant With Chinese Partner's Technology 포드, 미시간 배터리 공장에 35억 불 투자...업체 CATL과 합작

- 포드는 이 시설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전세계적으로 연간 2백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내 전기차 생산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회사는 해당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배터리 용량의 약 70%를 확보했다. 약 2천5백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포드는 본래 멕시코와 캐나다의 배터리 공장 부지를 고려했지만 IRA법안에 따른 연방 보조금 때문에 미시간 주에 정착했다고 임원들이 말했다.
- CATL은 세계 배터리 점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렴한 LFP배터리를 생산한다. 올해부터 포드의 Mustang Mach-E 전기 SUV에 사용될 LFP 배터리

리 팩을, 2024년에는 F-150 Lightning EV 픽업트럭에 공급하기 시작할 계획이다.

WSJ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"美기업들, 작년 4분기 이어 1·2분기도 이익↓ '실적불황' 전망"

S&P 500 기업 중 344곳 4분기 이익 2.8% 줄어

작년 4분기에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장기 화해 2개 분기 이상 이익이 감소하는 '실적 불황'(earnings recession)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.

13일(현지시간)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 500 지수 기업의 순이익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.7%, 2분기에 3.1%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.

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S&P 500 기업 중 지금까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344개 기업의 순이익은 2.8%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.

이에 따라 S&P 500 기업 이익이 올해 1분기에도 줄어들면 코로나19 대확산(팬데믹) 당시인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실적 불황에 빠지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unsubscrib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